

[예배 및 행사]

- ▶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올 한해 모두 성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0/20)까지 | 마가복음 16장
- ▶ 다음 주일(20일) 오후찬양예배는 마리아-마르다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예배 기관은 사회자, 기도자, 성경봉독, 헌금위원을 한 주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

- ▶ 10월 교회 청소 담당 | 1·2구역(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 오늘 주일 식사봉사 | 드보라 여전도회 / 다음 주일 식사봉사 | 에스더 여전도회
- ▶ 동서노회 정기노회 | 내일(13일) 산돌교회(거제), 담임목사 참석
- ▶ 성경공부반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예배실
- ▶ 주차위반단속 주의 | 성지풍경 앞 사거리 주차(상습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 ▶ 담임목사 휴가 | 이번 주간(새벽기도회는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헌물]

- ▶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중보기도]

- ▶ 질병 중에 있는 교우를 위해 | 이준량 성도(새인천요양원)
- ▶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 노현우, 강민재
- ▶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을 위해 | 박지은, 윤석원
- ▶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위해

2024-01 김민주 학생 | 서하울 학생 전도 2024-02 고세이 학생 | 서하람 학생 전도

- ▶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을 위해
 - 해외 | 김영덕(에콰도르), 정문수/김명자(말라위)
 - 국내 | 큰기쁨교회(성남), 이순복(국내)

※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서경준
원로목사	김대규
은퇴장로	이영재
시무장로	나석규 김영덕 김진영
전도사	이바울
반주자	김성숙 오미양

예배시간

주 일 예 배	오전11:00 (주일)
찬 양 예 배	오후2:00(주일)
수 요 예 배	오후7:30(수요일)
금요기도회	오후9:00(금요일)
중 고 등 부	오후2:00(주일)

온라인예배는 유튜브에서
"인천성지교회"를 검색하세요



http://www.sj.or.kr

주일오전예배

오전11:00

인도 : 서경준 목사

예배의 부름

- 예배의 부름 성 가 대
- 성 시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새찬송가 28장 다 갈 이
- 성 시 교 독 12번 시편 19편 다 갈 이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 대 표 기 도 김진영 장로

교제와 나눔

- 광 고 인 도 자
- 새가족환영 인 도 자

말씀의 선포

- 성 경 봉 독 로마서 7장 14~25절(신248P) 인 도 자
- 특 별 찬 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마누엘 성가대
- 말 씀 선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서경준 목사

결단의 시간

감사의 응답

- 봉 헌 새찬송가 268장 헌 금 위 원
- 찬 송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갈 이
- 축 도 서경준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은 예배시간 20분전에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안내위원	주일오전예배 신세나·유재희 권사, 박용호 안수집사
다음주 헌금위원	주일오전예배 현장 예배 참석자 중
다음주 기도	주일오전예배 김연원 안수집사 / 마리아·마르다헌신예배 회원중

지난주일설교

서경준 목사

계명으로 드러나는 죄(롬 7:7~13)

바울은 (롬 7:7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뱀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담에게 주어지자, 뱀이 그 계명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그 계명으로 아담이 욕심의 죄를 짓게 된 것처럼, 바울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더라면, 죄가 죽은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롬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에 실패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려고 새로운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알게 된 계명들로, 우리가 욕심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지만, 동시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상태에 놓여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평안과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은 성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지교회

담임목사 서경준

인천시 남동구 간석로 66번길 25

대표전화 439-6157

팩스 437-6150

목양실 439-615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2:00

인도 : 서경준 목사

찬양의 시간	
기 도	통성으로
말씀선포	서경준 목사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1장 21절

믿음과 삶

수요저녁예배

오후7:30

인도 : 이바울 전도사

찬 송	새찬송가 385/527장
기 도	통성으로
말씀선포	이바울 전도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새벽기도회

오전5:00

이번 주 새벽기도는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향기로운 예를 드리신 분 (온라인 헌금 10월 6일 12시까지)

십 일 조	강현욱,김윤옥 김미자 김영덕 오희택,최태순 이미정 진광희 최선이 황예랑 무 명
감 사 (일천번제)	강종선 김경숙 김대규 박용호,신세나 서하울,하람 성경순 유미자 이바울,김아름 이영재 이종욱 이희영,희선 최정임 허은경 황의래
주 정 (온라인)	강민영 공예분 권순남 김가미 김경숙 김규연 김대규 김무겸 김미자 김성숙 김아름 김영덕 김연만 김영순 김윤옥 김의연 김정갑 김종환 김진영 김태연 김희복 김희숙 문분예 문인숙 박기수 박영숙 박영규 박용호 박점순 서경준 서명옥 서하람 서하울 성경순 송대선 신세나 양성모 양은혜 양진석 양치호 오미양 오주영 오희택 유미자 유완자 유재희 윤남숙 이바울 이봉석 이상열 이영자 이영표 이육자 이은재 이 인 이종화 이주은 이충구 이희선 이희영 전개문 정숙희 조순자 진광희 최경옥 최다솔 최태순 최현미 최혜숙 한용운 허은경 황예랑 황의래 무 명
선 교	최다솔 최태순
차 량	최태순
건 축	최태순
성 미	공예분 김성숙 김옥순 김윤옥 김희복 유미자 이봉석 이영자 진광희 최태순 황의래 장항미

온라인 헌금

(입금자명에 이름과 헌금종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헌금-홍길동주정

계좌번호 | 신한 135-000-021527 / 예금주 | 성지교회